ORIA 생태계위원회 정례회의(6차) 개최 결과

('25.04.10.(수), ORIA 사무국)

Ⅰ.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5.03.19.(수), 16:00~18:00 / ETRI 서울사무소 회의실

○ **(논의내용)** O-RAN F2F 미팅 및 MWC 리뷰, 주요 활동계획 등

○ **(참 석 자)** 생태계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사무국 등 16명

- 남기동 센터장, 김상완 박사, 강경순 책임, 최용훈 책임(이상 ETRI), 김동구 교수(연세대), 채상훈 수석, 최태영 수석, 윤여훈 책임(이상 TTA), 문재진 팀장(NIA), 김태윤 책임(LG전자), 오지영 팀장(이노와이어리스), 김용필 상무(레드햇), 박영완 상무(퀄컴), 장광재 대표, 권철 소장(이상 TJ이노베이션), 김현수 과장(KANI)

Ⅱ. 회의 결과

□ 주요내용

① O-RAN Alliance F2F 미팅 리뷰 : 강경순 책임(ETRI)

○ O-RAN F2F 미팅 및 표준화 진행 상황 등을 소개

- 매년 2월(유럽), 6월(아시아), 10월(북미)에서 총 3번 미팅을 개최하며, 보드 미팅을 통해 표준 사항을 승인
- OTIC(ETRI 포함)에서 주로 참여하는 TIFG에서는 E2E 종단간 시험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 O-RAN Alliance - ETSI - 3GPP 순으로 접점을 만들고 일종의 약속된 절차를 통해 표준화를 추진 중
- 미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직 O-RAN 기술력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시험의 요구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음

○ 트럼프 시대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가 필수적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협력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임

-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미국 우선주의 등으로 오픈랜 관련 시장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더불어 미국 NTIA와 우방국 중심의 오픈랜 활성화하기 위한 IORS의 차기 행사도 취소됨)

- Korea OTIC에서는 시험 및 인프라 지원 및 성적서 발행 등을 진행하고 있고 영국(SONIC Labs) 및 일본과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림

② MWC 2025 Review : 김상완 기술총괄(ETRI)

○ MWC 2025(3월 3일~6일) 현장 분위기, 핵심 키워드, O-RAN Summit, 글로벌 텔코 AI Alliance 등 정리 소개(상세내용 발표자료 참고)

- O-RAN Summit에서는 오픈소스 SW 사용의 증가로 오픈랜 장비들의 보안 취약성, O-RAN 플랫폼에 AI 적용 등을 현재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음

- 글로벌 텔코 AI Alliance는 SKT 중심으로 도이치텔레콤, 싱텔, 소프트뱅크 등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기존 통신사업자에서 AI 서비스 사업자로 전환하자는 공동의 필요성을 가지고 설립됨

-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업자-벤더 등 기업 간 상호협력이 중요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조직 운영도 필요한 상황임

③ 생태계 위원회 주요 활동 공유 : 남기동 센터장(ETRI)

○ Korea OTIC과 통신사 공동으로 '25년 PlugFest 개최를 위해 Kick-Off 및 주요사안 논의를 준비하고 있음(결과는 추후 공유 예정)

○ Korea OTIC 인증 현황은 ETRI/TTA 각 Lab별로 공유하기로 함

○ 생태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2명) 추대함(임명)

- 부위원장 : 문재진 팀장(NIA), 김태윤 책임(LG전자)

□ 후속조치 계획

○ ORIA 생태계위원회 4월 정례회의

- (일시/장소) 2025년 4월 16(수) 16:00~18:00 / 상연재 서울역점

Ⅲ. 회의 전경



끝.